

이기는 삶

존댓말

㉞“아저씨, 말 좀 물어보겠습니다.”(길 가던 젊은이가) ㉟“아버님, 식사하세요.”(머느리가 시아버지에게) ㊱“아버지가 편찮으십니까.”(손자가 할아버지에게) ㊲“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까.”(사회자가) 이 중 제대로 된 말은 없다.

㉞의 제대로 된 말은 “말씀 좀 여쭙보겠습니다.”이다. 요즘은 “말 좀 물어보겠습니다.”고 해도 괜찮은 편이다. “뭘 좀 물어봅시다.” 식으로 다짜고짜 묻는 것은 실례다. ㉟의 경우는 “아버님, 진지 잡으십시오.”가 맞는 말이다. 요즘 젊은 세대의 언어는 ‘말씀’ ‘진지’ ‘생신’ ‘연세’ ‘병환’ 같은 어휘가 실종되었다.

‘여쭙다’ ‘잡으시다’ ‘주무시다’ 역시 좀처럼 듣기 어렵다. ㊱의 경우는 “아버지가 아릅니까.”라고 해야 한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말할 때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손아랫사람이므로 낮춰 말해야 옳다. ㊲은 “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가 옳다. 무조건 높이다 보니 행위나 물건까지 존대하는 경우이다.

국어학자들은 존댓말이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초기에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본다. 나 먼저 먹고 나 먼저 가려는 마음이

앞서면서 남에 대한 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존댓말을 쓰면 손해 보는 것 같고 낮아진다고 느낀다고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고마우면 비치사러 갔다가 두부 들고 온다.’고 했다. 남을 배려하는 말씨를 쓰면 남도 나를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된다. 서울 신당초등학교가 존댓말을 공용어로 썼더니 싸우거나 선생님에게 대드는 일이 확 줄었다고 한다. 어린이들끼리,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존댓말을 쓰면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존댓말을 듣는 인격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덕분이다.

일본 젊은이들은 ‘백도날드’에서 존댓말을 배운다는 우스갯말이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아르바이트하는 세계에서 처음 존댓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말은 마음의 소리라고 한다. 존댓말이 살아나면 우리네 심성(心性)의 모란 부분도 많이 꺾일 것이다. 인간은 말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말부터



다르다. 그들의 말은 늘 확신에 차 있고 긍정과 낙관으로 가득하다. 성공했기에 말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말이 다르기에 성공한 것이다. 성공할 기미가 없는 사람들을 보라. 말에 자신이 없고 부정과 비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늘 남을 탓하고 남을 욕한다.

인간의 뇌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박히고 뇌는 척수를 지배하며 척수는 행동을 지배한다. 존댓말을 쓰게 되면 자연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러한 자신의 말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끔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그 결과의 수혜(受惠) 대상자는 결국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된다. 예의 바른 사람을 여겨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악습을 버려라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속에 가장 큰 마귀, 가장 큰 악습을 찾아서 그 악습을 버리려고, 그 악습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마음의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져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싸움도 없이 생각 돌아가는 대로 움직이는 자, 결코 이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자, 못마땅한 생각이 있는 자,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지 않는 자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체온 상승에 좋은 몸동작!!!
~제자리 뛰기~ 허벅지와 코어를 자극해 체온 업 ↑

고관절을 들어주는 주변 근육(굴곡근)과 코어 근육, 허벅지 앞쪽 근육(대퇴사두근)을 골고루 단련하는 데 효과적이다. 전신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윗몸 운동인 동시에 체지방도 효과적으로 연소시키므로 운동 부족으로 살찌기 쉬운 겨울철 실내 운동으로 제격이다.

동작①: 제자리에서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 들어올린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뛰다.

동작②: 상체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복부에 긴장을 유지하며 20초간 시행한다.

~브리지 자세~

허리부터 엉덩이, 무릎의 근육을 자극하면서 하체 체온을 높인다. 척추 근육을 튼튼하게 해 몸 전체의 균형 잡힌 발달을 도와준다.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면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데 효과가 좋다.

동작③: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90도 정도 당긴다. 목과 머리는 바닥에 닿게 한다.

동작④: 상체와 하체를 수평이 되게 해 엉덩이를 들어올려 30초 정도 버티다가 서서히 내려온다. 엉덩이를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신다. 10회*



구습(舊習)에 물든 유불선이 생사(生死)의 이치를 모르니 영생불사를 외치는 미륵불이 출세하건만 알지를 못하는구나

精覺歌(一) 정각가
不覺精神怨無心 불각정신원무심
還回今時心和日 환회금시심화일
天說道徳忘失世 천설도덕망실세
東西道敎會仙境 동서도교회성경
末世汙染儒佛仙 말세오염유불선
無道文章無用世 무도문장무용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죽으리라. 지금은 마음을 돌이켜 화합하고 화목해야 하는 때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도(道)와 덕(德)을 잃어버린 지금의 세상에서 동서의 도(道)와 종교가 모여 하나가 되어 선경을 이루려고 하느니라. 말세에 유불선이 구습(舊習)에 물 들었으니 도(道)가 없고 경전 속의 문장도 쓸모가 없는 세상이 되었느니라.

孔孟讀書稱士子 공맹독서칭사자
見不覺無用人 견불각무용인
阿彌陀佛道僧任 아미타불도승임
末世汙染失眞道 말세오염실진도
念佛多誦無用日念佛다송무용일
彌勒出世何人覺 미륵출세하인각
河上公之道徳經 하상공지도덕경
異端主唱將亡兆 이단주창장망조
自稱仙道呪文者 자칭선도呪문자
時至不知恨歎 時지부지한탄

공자 왈(孔子曰), 맹자 왈(孟子曰)하면서 사서삼경을 읽으며 자칭 선비임에 선생임에 하는 사람들이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미타불만 외우는 불도를 닦는 스님들도 말세를 당하여 세속에 물들어 참된 도를 잃어버렸으니 염불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쓸모없는 세월이다. 미륵불이 출세하건만 어느 사람이 알겠는가? 유교의 선비들이 하

상공(河上公)의 도덕경을 이단(異端)이라고 부르짖으니 장차 세상이 망할 징조로구나. 자칭 선도(仙道)를 닦는다고 주문(呪文)을 외우는 사람들도 때가 이른 것을 모르니 한탄할 일이다.

西學立道讚美人 서학립도찬미인
海內東學守道人 해내동학수도인
舊染失道無人 구염실도무용인
枝枝葉葉東西學 지지엽엽동서학
不知正道何修行 부지정도하수생

서학(西學=기독교)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과 우리나라 동학(東學)을 수도하는 사람들도 구습(舊習)에 물들어 도를 잃었으니 모두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동서양(東西洋)의 여러 종교와 학문이 참된 진리 즉 바른 길(正道)을 모르서야 어떻게 도를 닦아 영생을 할 수 있겠는가?

再生消息春風來 재생소식춘풍래
八萬經內極樂說 팔만경내극락설
八十一載道徳經 팔십일재도덕경
河上公長生不死 하상공장생불사
死而復生一氣道徳 사이부생일기도덕
上帝豫言聖眞經 상제예언성진경
生死其理明言判 생사기리명언판

고생 끝에 즐거움이 돌아오고 비웃음이 죽을 목숨 다시 살아 영생하게 된다는 소식이 봄바람(춘풍=화풍=동방강을삼팔목)에 실려 오는구나. 팔만대장경(안에도 극락설(極樂說)이 있고 노자(老子) 도덕경 81장에도 실려 있느니라. 하상공의 장생불사(長生不死) 주장은 옛사람이 죽고 참 나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살아 영생한다고 도덕경을 설명하였고 이와같이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기록한 거

룩한 진경(眞經)에는 생사(生死)의 이치를 분명하게 밝혀두었느니라.

無聲無臭別無味 무성무취별무미
大慈大悲博愛萬物 대자대비박애만물
一人生命貴宇宙 일인생명귀우주
有智先覺合之合 유지선각합지합
人人還本道成徳立 인인환본도성덕립
人人不覺寒心 인인불각한심

하나님은 소리고 냄새도 없고 특별한 맛도 없지만 대자대비(大慈大悲)하셔서 우주만물을 두루 평등하게 사랑하시느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니라. 지혜 있는 자와 선각자들이 화합, 단합하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느니라. 사람 사람마다 근본(根本)으로 돌아가(원시반본原始返本) 하나님이 되고 도성덕립(道成徳立)=영생의 도를 완성하여 사람 살리는 일에 전념함이 되게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니 한심한 일이다.

도(道)는 천도(天道)를 말하고 영생지도(永生之道)이다. 덕은 지덕(地德)으로 도를 지상에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천도지덕(天道地德)을 줄여서 도덕이라고 한다. 주역에 겸(謙=겸손,겸허,겸양)은 덕지병(德之柄)이라 하였으니 덕을 실현하려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겸손, 겸양, 겸허한

마음이 없으면 도성덕립(道成徳立)은 없으며 영생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孔孟士子坐井觀天 공맹사자좌정관천
念佛僧任不染塵世 범불승임 불염진세
如言將談 연언장담
各信生死從道不知 각신생사종도부지
虛送歲月恨數 하승세월한탄
海外信天先天人 해외신천선정인
唯我獨尊信天任 유아독존신천임
降大福不受 강대복불수

공자 왈 맹자 왈 하면서 사서삼경의 글자를 외우는 선비님 네들 우물 안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격으로 경전의 참 뜻을 모르고 있고 아미타불을 외우며 염불하는 스님 네들은 세속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생사의 이치도 모르면서 제 각각 도를 따라 신앙하지만 허승세월만 하니 한탄할 일이다. 해외(海外) 즉 외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이라.*

박명하 / 고서연구원가
myunghpark23@naver.com

나를 이기는 길 하늘에는 사탄마귀가 있다

어쨌든 나는 어머니의 병이 완치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신)은 있는 것인가? 귀신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넋째 날 선생님은 신에 대해서 말씀 하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중 하늘 어디에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공중 하늘에는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 없다. 또한 신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시며, 사람 자체가 신이며, 또한 만물도 신이며, 물질 자체가 신이라는 과학적인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늘에 안 계신다고요?
선생님: 그렇다. 하늘에는 사탄마귀가 있다고 성경에 쓰여 있다. 에베소 2장 2절, 6장 12절을 읽어보면 공중에 마귀가 있다고 쓰여 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사람 속에 있다고 쓰여 있다. 그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고, 공중에는 사탄마귀가 있다.

신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인데 사람이 신이라고요?
선생님: 사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아는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마음대로 다스리며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사탄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영적인 포로가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이 지금의 사람으로 변모한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원래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마귀의 포로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되었고, 평생 마귀의 조종을 받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다.*

선생님: 신이 존재한다면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야 한다. 존재한다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맞는 거 그렇지 않나?
성경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생명이요 기록되어 있다.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요 신이라는 말씀이다.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도 신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시편 82편 6절에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도 사람보고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이 신이지 공중 하늘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선생님: 사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아는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마음대로 다스리며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사탄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영적인 포로가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이 지금의 사람으로 변모한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원래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마귀의 포로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되었고, 평생 마귀의 조종을 받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재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수원제단 : (031)236-8465
- 안성제단 : (031) 673-4635
- 평택제단 : 010-7516-1591
- 부산제단 : (051)863-6307
-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55)327-2072
- 대구제단 : (010)6530-7909
- 마산제단 : (055)241-116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진해제단 : (055)544-7464
-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 포항제단 : (054)291-6867
- 순천제단 : (061)744-8007
- 정읍제단 : (063)533-7125
- 군산제단 : (063)461-3491
- 대전제단 : (042)522-156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橫濱祭壇 : (045)489-9343
- 神戶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 大阪祭壇 : (06)6451-3914
- London: (0208)894-1075
-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